

News

5대 은행, 연초 신용대출 6조원 급증... 'LG엔솔 청약 영향'

조선비즈

5대 은행 신용대출 잔액, 작년 말 139조 5,572억원에서 지난 20일 기준 145조 6,514억원으로 6조 942억원 증가
작년 12월 한 달동안 늘어난 대출 잔액인 3,648억원 대비 약 26배 많아... 작년 12월 신용대출은 연말 상여금 등 영향으로 1조 5,766억원 감소...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할 것

금융권, 설 연휴 맞아 36.8조 신규대출·보급 공급

헤럴드경제

금융권, 설 연휴 전후로 36조 8,000억원의 신규 대출 및 보급 공급키로... 기업은행, 운전자금 용도로 신규자금 3조원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은행권, 5대 시중은행 포함 14개 은행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 32조 3,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공급 예정... 기존 대출 만기 연장으로는 43조 6,000억원 공급 지원

누가 은행주 투자하겠나... 금감원 압박에 배당금 삭감 우려

매일경제

금융감독원, 1월 초에 시중은행들에 작년 총당금 적립 규모 확대 및 수치 제출 요청...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등 부실에 따른 충격 발생 가능성 대비 손실흡수능력 확충 목적
특히 오는 3월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제도 종료될 때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업권에서는 총당금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배당 축소에는 반대 중... 당국의 배당을 지장 주목

IPO 선언한 케이뱅크, 두나무 손 짝 붙잡을까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 연내 IPO를 선언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용사 두나무와의 파트너십 연장 여부에 이목 집중
자금 세탁 방지 책임이 부담되는 시중 은행들은 굳이 두나무와의 제휴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 다만 우리은행, 대선후보들의 호의적인 가상자산 인식 등으로 변수

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제공 25일 결정

보험매일

건보공단, 25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 재심의... 작년 9월 한화, 삼성, 교보 등 5개 보험사의 신청에 미승인 결정
이번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험업계 전체에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의 물고 틀 수 있어... 심의위 기류 변화에 기대감...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개선을 위해 건보 데이터 필요하다는 입장

보험사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싸졌다 '이례적 역전'... 한도도 많아

뉴스1

보험사 주담대 금리,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 발생... 이에 따라 보험사 대출에 대한 관심 커져...
또한 보험사 주담대 한도가 은행보다 많아진 점도 주목 중... 2금융은 은행에 비해 50%로 10%p 더 여유 있어 대출한도가 많아... 보험사 대출로 물리는 풍선효과 우려

빚투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증시폭락에 반대매매 급증

매일경제

1월 들어 국내 증시 5% 가까이 조정 받으며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공포 급증... 초단기 대출은 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가 이달 들어 급증... 20일까지 총 2,864억원
특히 11일에는 하루 동안 314억원 규모의 반대매매 존재... 미수보다 신용이 단기 추가 급락에 취약한 구조... 조정장에서는 신용이나 미수 많은 종목 거래 주의 요망

금융당국 올해도 '소규모 펀드' 억제... "투자자 보호"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최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
유행에 민감한 국내 펀드시장 속성 때문에 소규모 펀드 줄어들지 않는 상황... 소규모 펀드 비율 5%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 제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